



스텔라리

2024. 12. 31. Vol. 29



STELLA

Tel. (032)864-0055 Fax. (032)864-0051

다짐을 되뇌며



어느 덧 스텔라의 집에서 근무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스텔라의 집에 입사할 때 다짐했던 마음을 되뇌봅니다.

저는 스텔라의 집에 오기 전, 전 직장에서 9년간 회계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항상 더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넘어, 생활인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긴 고민 끝에 스텔라의 집으로 이직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스텔라의 집은 저에게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닌,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저는 스텔라의 집 가족들에게 언제나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나 슬픔을 품고 있더라도, 저를 찾아오는 순간만큼은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필요한 날, 기댈 누군가가 필요한 날, 그럴 때 제가 떠오르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과 따뜻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텔라의 집이 여러분께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도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텔라의 집을 여러분의 또 다른 가족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내미는 손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저 말고 손 내밀어 주세요. 서로 손을 잡을 때 작은 힘이라도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스텔라의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웃음과 눈물, 고민과 꿈을 나누겠습니다. 이곳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저에게도 늘 배움과 성장이 함께하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스텔라의 집이 새 출발을 꿈꿀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박남훈 스텔라의집 생활복지사



04 생활인 글

08 운영위원 글

12 스텔라의 이모저모

20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22 후원자 명단



CoverStory

스텔라의집 아기 천사들

발행인 조영희

발행처 양육지원시설 스텔라의 집
www.stellahouse.kr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학길26번길 40
(문학동) 유일아트빌

전 화 032)864-0054~5

기 획 스텔라의집

편 집 (주)도서출판 디자이너클럽
032)613-6352

내 생활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너에게

글 김진경

비혼주의라며 떠드는 사람이 가장 먼저 결혼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서 그런 걸까. 그 말을 내게 해오던 부모가 사라졌기에 그 말의 절반만 맞은 걸까. 성냥의 불꽃처럼 살아가던 내게 노크도 없이 다가온 너를 온전히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지나쳤는지 너는 알까.

불만족스러웠던 현재의 나를 뒤로하고 너를 키우려니 너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클 것 같아 막 태어난 너를 보러가지도 못한 채, 보호자도 없는 병실에서 걱정이라는 변명 속 외면을 하던 나였다.

임신 중엔 사우나도 가지 않는다는데, 나는 너무 불꽃 같은 태교를 해온 탓인지 차게 식어 보이는 인큐베이터 속 너를 보며 울렁거리는 마음을 잡지 못하던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너는 몰랐으면 한다. 잡지 못하던 마음을 가지고 너를 입양 보내며, 붕 떠 있는 마음들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당당한 척하던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너를 기관에 보내고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입양 철회를 하겠다며 울던 그 순간이 내가 너를 만나고 난 후 처음으로 솔직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인큐베이터 속 너의 모습을 사진으로라도 남기라던 언니의 말에 예쁘지도 않다는 나의 말도 다 이기지도 못할 거짓말이었다는게 이렇게 들통이 나는구나 싶었다.

4년이 지나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때의 감정을 다 털어내지 못하여 사무치는 것을 보니 내가 얼마나 얄은 거짓말로 나를 속여 왔던건지, 나도

몰랐던 널 향한 사랑을 전부 숨기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입양 철회를 하고 널 다시 만나기까지 두 달이 걸렸다. 아동 기관 사무실에서 입양 철회 서약서를 전부 작성하기까지 널 보여주지 않았고,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난 후에야 널 보여주는 것이 참 먹먹했다.

내 도장을 찍기 전까지 널 내 친권에서 벗어나 있었으니 그랬겠지. 분유를 한끼에 50미리도 먹지 못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너에게 첫 분유를 줄 때, 기다리던 엄마 품에 와서 그런걸까 한달음에 120미리를 먹고 만족해하는 너를 보며 내가 이 핏덩이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실감이 되어 한동안 죄책감 속에 널 키웠던 것 같다. 그 죄책감이 너무 컸던 걸까.

너에게 쏟는 나의 노력들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이미 너는 15개월이었다. 입양 다녀온 애처럼 보이지 않아야지, 한부모처럼 보이지 않아야지 하는 자기 연민에 빠졌던 나는, 너와 나를 꾸며내기에 급급했던 탓에 그 자체로도 예쁘던 너를 한시도 가만두질 못하며 개인기를 연습시키고, 생활실에서도 예쁜 외출복으로 하루에 세 번 이상을 갈아입히며 사진을 찍어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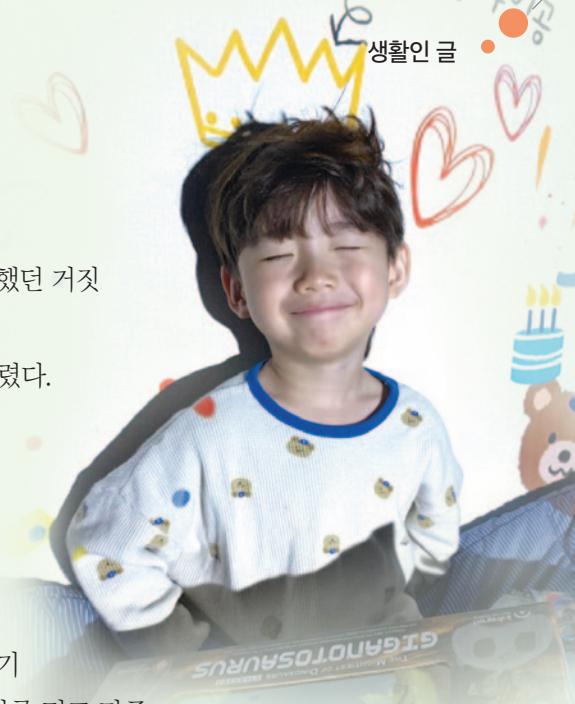
그 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 있는 나의 sns속에서 추억이라고 지우지도 못하는 그 사진들을 속 편히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것을 보니 그때의 너에게 참 미안한가보다.

세상을 마주하던 내 생각의 폭이 좁았던 탓에,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아이들을 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기에 무작정 대학교에 들어가 보육교사를 따냈다.

어린 너를 두고 너보다 큰 아이들을 돌보며 실습을 할 때, 실습이 끝난 후 어두워진 하늘 아래 널 데리러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청소하는 선생님 옆에 앉아있는 모습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너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니 왜 다 미안한만 남은걸까. 어쩔 수 없다는 나의 회피속에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부 주지 못했기 때문일까. 가장 사랑이 필요하던 때의 너를 외면했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

후회했다. 그때의 선택을.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말걸. 난 지금도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부 주지 못하는데, 나의 선택으로 부



죽한 엄마가 되진 않을지 늘 걱정했다. 그래, 내 고향에선 늘 너를 걱정속에서 키워냈다. 그것이 널 잃지 않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음지도 모른다.

고향에서 살던 시설에서 2년만에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너가 가장 친한 동생의 엄마, 그 이모 맞아. 나는 마음의 폭은 좁았으나, 생각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었고 늘 걱정 속에 사로잡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너를 키워온 너의 세상이 너무 좁더라.

그 순간 바로 다짐했다. 늘 사람을 잃어만 가던 내 고향이 너의 배경이 되지 않아야겠다고, 그래서 돌연 인천으로 떠나왔다.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시설과 마주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색의 복지사를 만나니 속이 후련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너에게 되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강박으로 만들어 둔 틀을 한순간에 깬 것만 같았다. 새로 만난 복지사에게 첫 날, 너와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돌려받은 마음에서 얻어온 것이 있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비우지 않고, 오늘 의 힘을 비운다는 것. 참 좋았다.

너와 나를 동정하지 않고, 내가 뱉은 말들을 마음으로 받아주고 마음으로 돌려준다고 느꼈다. 너를 직접 보기도 전에 너에게 마음을 표현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았다.

다. 그동안의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싶어 이 곳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가지다 보니, 내가 그동안 받아온 사랑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왔구나 하고 느꼈다.

그 중 첫 번째가 너였다. 너에게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다. 늘 무탈하게 건강하고, 날 무한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의 세상을 전부 나로 채워주고, 너의 반짝이는 두 눈에 늘 나를 담아뒀던 것에 항상 감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온통 무채색이던 나의 시선에 널 향한 마음이 담긴 색들을 한 두 방울 섞다보니 어느새 다채로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뒤늦게 철이 드는구나. 너를 키운다는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나였구나. 널 향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니 아이를 보는 직업을 가지는데에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잘하고 싶었다. 너와 함께한 순간 이후로 내가 한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고,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후회했던 보육교사전공이 이제는 기회가 되어 유아교육과에 편입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다. 후회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너가 발을 내딛을 사회를 내가 먼저 배워보니 참 재미있었다. 대학교 과제로 T/C작업을 할 때엔 너가 무슨 생각을 하며 대답할지 늘 상상하며 웃음을 지어내길 반복했다. 너를 향한 상상만으로도 웃음을 지어내던 적이 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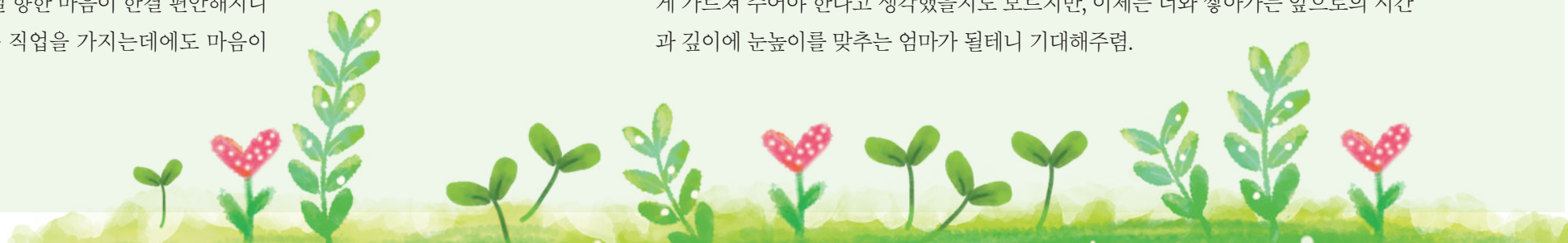
예전엔 미안함 뿐이었는데 지금은 즐거움뿐이구나. 마음가짐과 시선을 바꾼 것뿐인데 사람이 참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싶었다. 너를 두고 학교 수업에 가야 할 때에도, 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러 간다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고 그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내 입에서 나올 때 나의 모습이 놀랍다. 이제야 너 앞에 서기에 내가 엄마로서 당당해졌나 보다.

이 글에서조차 날 호칭할 때, 엄마라고 쓰기가 어려웠다. 그 때의 순간들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나 참 부족했구나 느껴진다. 가장 부족하던 엄마였던 그 순간에 널 향해 엄마라는 단어를 홀로 만번을 연습해서 들려주었을 너를, 엄마와 나란히 걸을 수 있게 서고 걷기를 혼자 연습했을 너를 생각하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감히 상상도 해볼 수가 없다.

아이에게 최고의 가르침은 웃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는데, 엄마는 너에게서 웃는 법을 배웠다. 웃음은 관계에서 지는거라고 생각해보며 평생을 살아온 나를 한순간에 바꿔버린 너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엄마가 너에게 배움을 얻어가는구나. 예전의 나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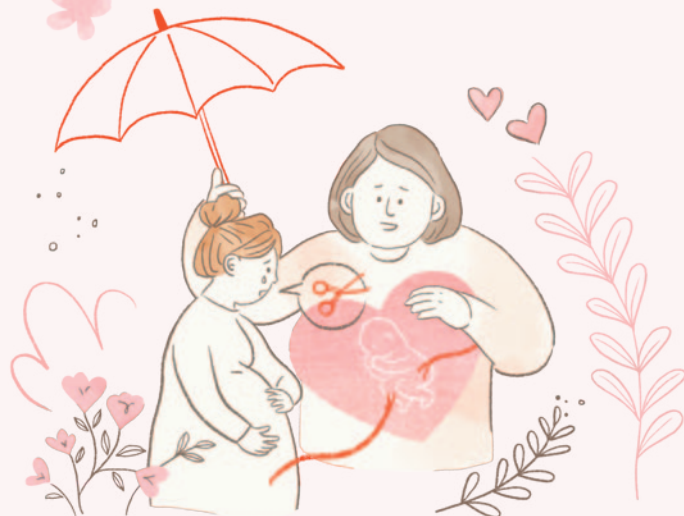
널 바라보며 너에게서 배워가는 것이 무한하다는 것과 그것을 나누는 너의 사랑이 나에게 참 큰 행운이다. 너의 첫 생일 때 너에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나에게 행운처럼 날아와 내 세상을 행복으로 물들여준 아가야, 넌 한순간도 나에게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추억 보다 기다림이 있는 이 순간이 참 즐거운 것처럼 앞으로의 행복들이 기다려지는 날들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24살에 너를 처음 만나 지금 내가 29살이 되고, 너는 5살이 되었다. 어쩌면 그동안은 너가 겪어보지 못한 엄마만의 24년의 세월을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너와 쌓아가는 앞으로의 시간과 깊이에 눈높이를 맞추는 엄마가 될테니 기대해주렴.



함께하는 나눔

글 윤현중 스텔라의집 운영위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은 조건 없는 나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루카복음 15장)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죠.

젊은 시절, 저는 성경에 나오는 작은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천주교를 좋아하지 않았고,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천주교 신자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장모님은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례를 받기는커녕, 장모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성물조차 장롱 깊숙이 감춰달라며 외면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냉담을 요구해 끝내 하느님과의 만남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하느님을 박해한 현대판 죄인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저로 인해 마음고생을 무척이나 많이 하셨지만, 늘 저희 집에 오셔서 오

래도록 기도해주셨습니다. 지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장모님의 뒷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장모님과 아내에게 아픔과 슬픔을 안겨드렸고, 그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4년이 지나, 장모님께서 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장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소원은 “막내 사위가 세례를 받아 천주교 신자가 되어 성당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의 그 소원은 결국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활동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야학을 다니며 사회복지, 유아보육, 다문화가정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등급을 받도록 도왔고, 요양시설로 연계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으며, 학대받는 사람들을 안전한 시설로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스텔라의집, 빈첸시아의집, 모니카의집, 희망을 여는 가게, 인천역 꽃동네 음식 봉사 등 여러 곳에서 시간을 내어 봉사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며 생업에 매진하시는 스텔라의집 어머니들을 볼 때마다 사회적 미안함도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 또 고생하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일상을 보며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깐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온갖 윤희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도움과 나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꿈과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키우고 나쁜 습관들을 정

리하며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자주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문을 되새깁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자세를 깊이 새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스텔라의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기쁨과 어려움이 교차하는 시간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5년 새해는 지난날의 아픔과 부족함은 하느님께 맡기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올 한해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사랑을 나누며, 희망을 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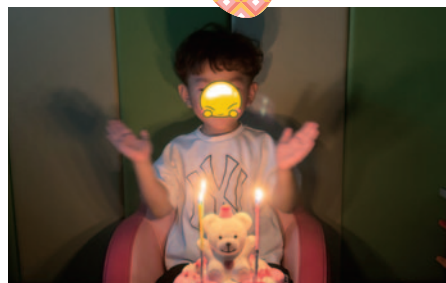
일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스텔라 가족들의 생일을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미소 가득한 나날 보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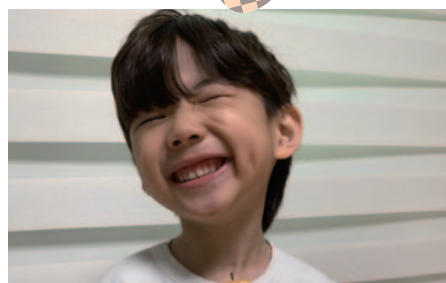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죠! ♡



〇〇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렴 ~♡



〇〇 왕자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



〇〇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



〇〇 공주님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



〇〇 공주님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미소가 이쁜 공주님 핫팅! ♡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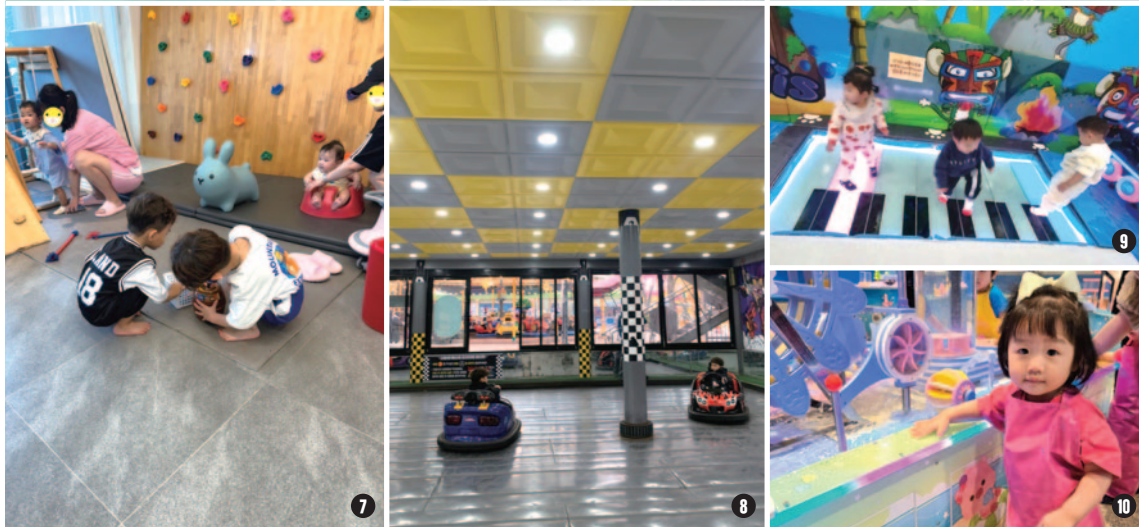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미소 가득한 나날 보내세요 ~♡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죠! ♡

가족 관계개선 사업

- ① ② 명절모습
- ③ 중무식
- ④ ~ ⑩ 유아 신체발달놀이



운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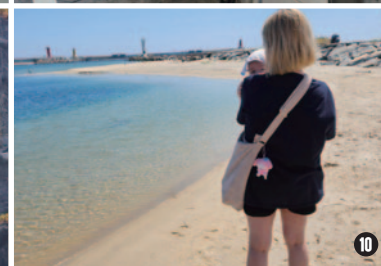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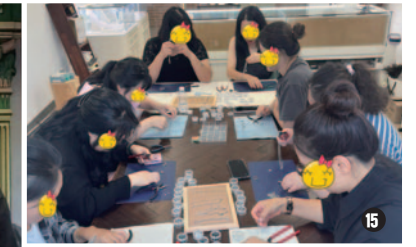
- ① 종사자 워크숍
- ② 사업평가회의



문화여가 활동

- ① ~ ⑤ 가족캠프
- ⑥ 놀이동산
- ⑦ 가족공예
- ⑧ ~ ⑬ 개별가족여행
- ⑭ 헤드워치 뮤지컬 관람
- ⑮ 써지컬 악세사리 만들기
- ⑯ 향수만들기





자원봉사 활동

- ① 경신전선 사회공헌활동
- ②③ 현대모비스 사회공헌활동



사후관리 사업

- ①~③ 설명회
- ④~⑦ 제주도 가족캠프
- ⑧~⑩ 종무식



부모교육

- ① 경제교육
- ② 김치만들기
- ③ 재난안전교육
- ④ 성교육
- ⑤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 ⑥ 약물오남용교육
- ⑦ 양육코칭교육
- ⑧ 폭력 학대 예방교육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밝은 앞날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엄마와 아기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펴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방법

우리은행 : 1005-701-096476
예금주 :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국민은행 : 237201-04-136742
예금주 : 인천교구스텔라의집
농협 : 351-0056-3198-13 / 예금주 : 스텔라의집

물품후원

생필품, 아기용품 등

혜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전화번호

032-864-0055 / Fax 864-0051

오시는길

지 하 철 : 1호선 주안역 버스 65번, 65-1번,
신동아3차 하차 등대교회 방향
시내버스 : 구월동에서 111-2번
문학초등학교 앞 하차, 등대교회 방향

Thank you!

스텔라의집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12월)



현대모비스임직원 결연후원



(주)경신전선 기부금



가천대길병원 명절선물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육아용품 후원



김승주님 장난감 후원



미추홀구 진로교육 지원센터
기부금



부영약국 쌀 후원



우리은행 육아용품 후원



원알로이 과일 후원



인천관교여중 인형 외 후원



인천사랑병원 쌀 후원



인천성모병원 간호부 기부금



인천신광초등학교 어린이집
분유 후원



인천여의사회 기부금



인천지방법원 생필품의 후원



인천축산농협 쌀 후원



정현길님 기저귀의 후원



청학동성당 주일학교 기부금



하나클럽 기부금



학산나눔재단 김장 후원



학익동성당 쌀 후원



한국여자의사회 기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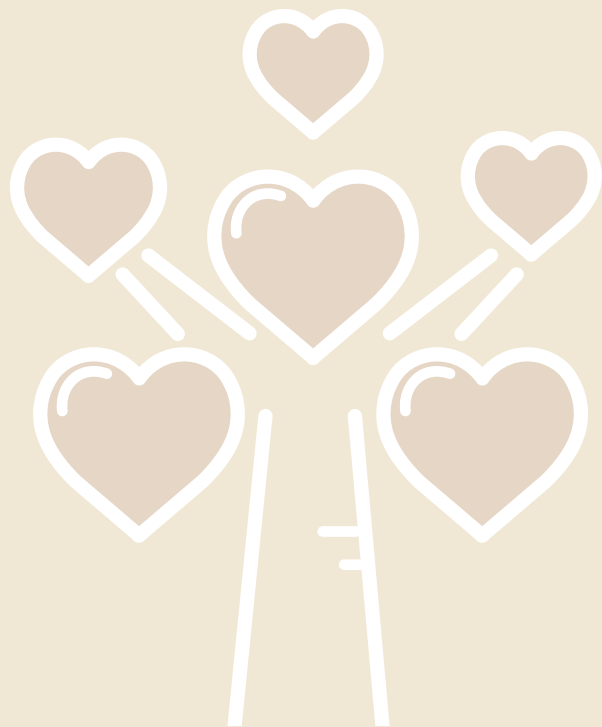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
기부금

나눔은 또 하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2024.01~2024.12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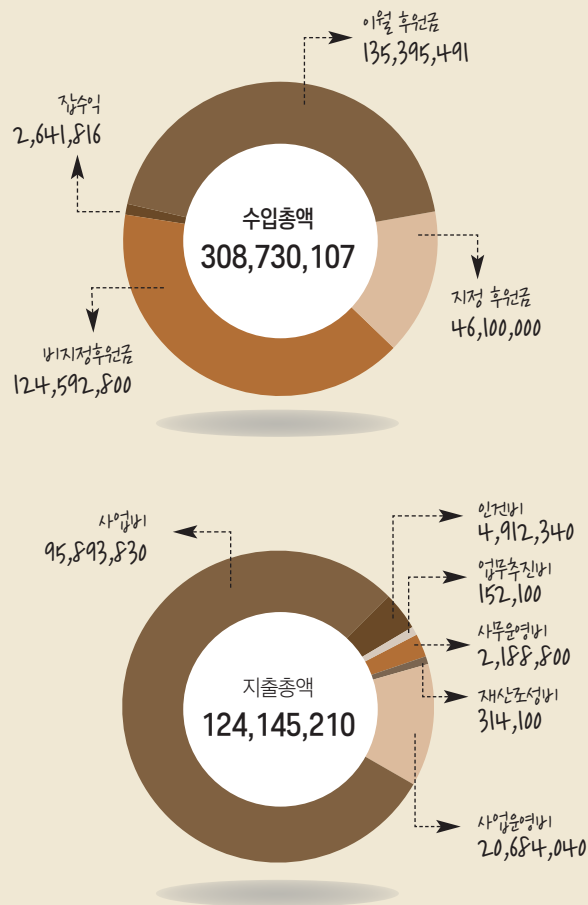
■ 수입

후원금의 종류	금액
이월후원금	135,395,491
지정후원금	46,100,000
비지정후원금	124,592,800
잡수입	2,641,816
계	308,730,107

■ 지출

사용내역	금액
인건비	4,912,340
업무추진비	152,100
사무운영비	2,188,800
재산조성비	314,100
사업운영비	20,684,040
사업비	95,893,830
계	124,145,210

※ 지정후원금은 주거자립비 지원 및 장학금 용도임.



후원해주신 분들

● 개인

강*모 강*선 강*욱 강*자 고*희 김*길 김*겸 김*경 김*규 김*남 김*례 김*리 김*민 김*석 김*선 김*순
 김*아 김*애 김*연 김*자 김*재 김*중 김*진 김*현 김*호 남*국 도*현 레오 루피나 류*석 박*구 박*남
 박*미 박*배 박*서 박*숙 박*숙 박*숙 박*영 박*욱 박*욱 박*자 박*진 박*진 박*현 박*빅토리아 방*정
 배*모 베스트 변*우 빛으로(익명) 서*순 서*원 서*주 성*경 성*자 성*정 손*진 송*찬 신*진 신*채 심*숙
 안*순 안*형 양*정 오*정 원*훈 위*화 유*분 유*숙 유*순 유*원 유*월 유*희 윤*모 윤*미 윤*식 윤*욱
 윤*은 음*희 이*권 이*민 이*민 이*복 이*섭 이*아 이*연 이*연 이*영 이*옥 이*옥 이*용 이*윤 이*자
 이*주 이*진 이*현 이*현 이*형 이*희 이*희 임*기 임*옥 임*자 임*자 장*귀 장*자 장*조 전*서 전*탁
 정*기 전*희 정*례 정*수 정*숙 정*영 정*진 정*라파엘라 조*순 조*현 조*희 지*자 최*미 최*선 최*식
 최*우 최*진 최*호 최*희 하*숙 한*성 한*성 한*숙 한*원 현*정 홍*금 황*현 황*희

● 단체

(재)인천교구 용현5동성당 (재)상도 (재)코벤 아이러브피플 하나클럽 화인페이퍼(주)
 그림책세끼 이진숙소아과 주식회사 경신전선 (주)태양노브공업 학익동성당사회복지회
 리더부동산 중개법인 인천성모병원간호부 주안1동성당 청라치과의원 나*찬 한국순교성인성당
 사회복지법인 대덕복지재단 인천시여의사회 (주)원알로이 청수성당빈첸시오회 한국여자의사회
 송의동성당 제물포성당 (주)명프리텍 청학동성당주일학교 형제전기철물열쇠

물품 후원해주신 분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혜 새마을금고 인천사랑병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주)아반사 학산나눔재단
 관교여중학부모봉사단 남구여성단체협의회 송의동성당 인천사회복지회 인천축산업협동조합 (주)원알로이 학익동성당사회복지분과
 길병원 디비고12 우리은행 인천시청 정*길 (주)현대모비스 한국순교성인성당
 김*모 미추홀구청 이*경 인천신광초등학교어린이집 주식회사 제이앤스포츠 청언성당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
 김*주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이진숙소아과 인천자모원 주식회사 지비에스 펠리티타스



| 미션 |

스텔라, 꿈을 재창출하는 싱글맘들의 홈!

| 핵심가치 |

- 사람이 희망이다.
- 다르니까 조화롭다.
- 나는 내가 키운다.

스텔라의 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학길26번길 40 (문학동) 유일아트빌

Tel. (032)864-0055 Fax. (032)864-0051

www.stellahouse.kr

stellahouse